

제16회 전국 화장실 심포지움 & 제1회 아시아 태평양 화장실 네트워크 회의 특별강연

협의회 회장 심재덕

본 내용은 지난 11월 9일부터 3일간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市)에서 있었던 특별강연 내용으로,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연설 전문을 파워포인트(POWER POINT) 내용만 줄여서 3회에 나누어 게재합니다

-편집부

먼저 열여섯 번째 맞는 일본화장실 심포지움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5년 일본화장실협회를 설립한 후 일본의 화장실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높이고 세계의 화장실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오신 니시오카 히데오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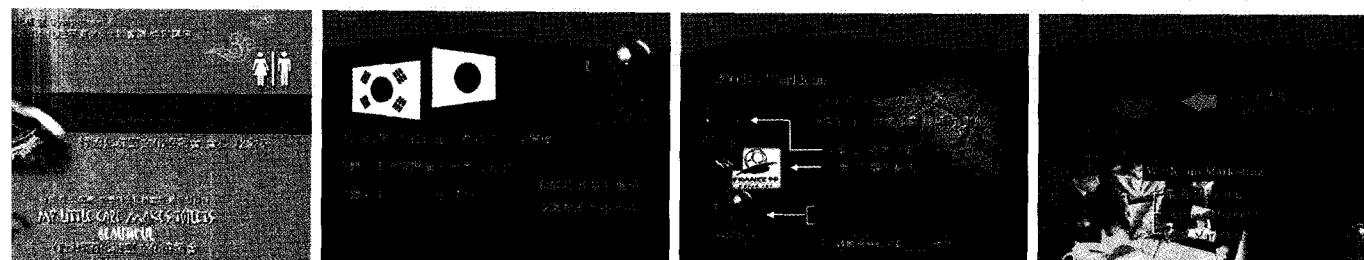
또한 이번 심포지움과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회의를 준비하신 일본화장실협회 우에쿠 사무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각국에서 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 회장이자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의 시장으로서 세계인의 축제한마당인 월드컵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화장실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I. 서론 - 월드컵의 의미와 화장실

월드컵! 이 말은 전 세계인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더구나 이번 2002년의 월드컵은 월드컵 사상 최초로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것이며 그것도 한국 일본 양국이 공동 주최하는 것으로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대회 준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화해와 공존을 통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보다 친밀한 선린우호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상호경쟁을 통해 국가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단순히 국가 간의 축구 경기를 넘어서서 경제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유·무형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개최도시의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94년 미국월드컵의 경우 약 4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바



화장실 문화개선은,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있으며 98년 프랑스 월드컵은 약 30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199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2년 월드컵을 통해 건설, 전자, 관광, 광고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은 8조원, 일본은 1조엔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마케팅 전략(maketing strategy)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 한국마케팅학회에서는 월드컵 마케팅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월드컵 마케팅은 관광마케팅, 서비스마케팅, 국가마케팅이라고 정의하고 월드컵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주창하였습니다.

이 관점에서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화장실의 의미와 개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II. 한국의 월드컵 준비와 화장실

1. 한국의 월드컵 준비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은 한국에서

10개 도시, 일본의 10개 도시 합계 20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 현재 역대 최대인 전세계 195개국이 참가하여 대륙별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중 32개국의 본선 진출팀이 가려져 20개 도시를 넘나들며 64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각국 선수단을 비롯하여 FIFA 임직원, 보도관계자 등 조직위원회가 예상하는 대회 참가인원은 13,000여 명이며 예상 관람객은 연인원 350만명, TV 시청연인원은 430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치러지는 32경기를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수원, 전주, 서귀포 등 10개 도시에 약 2조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월드컵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월드컵 본선 5회 연속진출을 해온 한국축구의 든든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중 7개가 축구전용구장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전체 평균 공정률이 50.8%를 기록하여 2001년 12월 이전 10개 경기장 모두 완공하여 2002년 5월까지 시운전 및 대회 관련 시설 완전 준비라는 계획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